

■ 연구원 소식

○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2월 28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문화강좌나 역사기행, 문화기행 등을 통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지역에 자리하고 계신 회원을 일상적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기 위해 **2020년에는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전북 세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부별 또는 지역을 넘어 회원 소모임을 통한 사업 계획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사업에 **2020년 연구원 예산을 배치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단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화관람, 독서토론, 체육활동, 사진강좌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부별 또는 **5인 이상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선정 후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우리가 연구원이고 연구원이 우리다”는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조선여자 남자현 체포되다 (1933년 2월 27일)

1872년 12월 7일 경북 안동에서 유학자 남정한의 딸로 태어난 그는 일곱 살에 국문을 여덟 살에 한문을 익혔고 열아홉에 아버지의 제자 김영주와 혼인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반가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열게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강행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의 남편 김영주 역시 “나라가 망해 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의병전쟁에 참전한다. 김영주는 마지막 인사대로 1896년 7월 11일 진보면 홍구동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전사하고 만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김성삼이라 짓고 홀몸으로 시댁을 건사하며 이십여년을 보내게 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아들과 함께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로 망명을 결심한 그는 남편이 전사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챙겨 입고 김동삼 백서농장에 정착했다. 그러나 농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되자 아들 김성삼을 신흥문관학교에 입교시키고 자신은 서로군정서에 입대한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군인이 된 것이었다.

1921년 이른바 자유시 참변으로 한인 독립군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자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 연대와 통합을 호소했다.

1923년 침체의 늪에 빠진 임시정부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을 이어가자 다시 손가락 하나를 잘라 통합을 호소했다. 이후부터 남자현은 '세 손가락의 여장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1926년 봄, 그는 박청산, 이청수, 김문거 등과 함께 사이코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계획을 세운다. 거사 시기를 엿보던 그해 4월 26일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조문하기 위해 창덕궁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4월 27일 일본인 가게 점원 송학선이 창덕궁 입구에서 일본인에게 흥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잡히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성일대는 대대적 검속 바람이 일어나 그 역시 조선을 벗어나 만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1931년 7월 만주 길림성 장춘현에서 만보산 사건이 터졌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만주를 접수했다. 만주 사변이다. 만주 사변 직후 일제는 독립군 색출 작업을 강화했다. 이때 남자현이 믿고 의지했던 동지, 김동삼이 체포됐다. 남자현은 김동삼 구출작전을 계획했지만 이마저 실패로 끝났다. 김동삼은 10년형이 선고되어 1937년 3월 순국했다.

1933년 1월 말, 남자현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일제가 수립한 만주의 괴뢰정부 만주국 건국기념일에 관동군사령관 겸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 육군대장을 암살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 남자현의 나이는 예순한 살이었다. 한국인 동지들과 중국인이 남자현을 중심으로 모의했고 남자현은 권총과 폭탄 등을 챙겼다. 거사일은 3월 1일(만주국 수립 날짜)로 잡았다. 남자현이 거지 할머니 행세를 하며 식당에 가서 무토 노부요시를 단독 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거사 장소를 여러 번 답사하고 송도사진관에 들러 마지막 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념식장을 답사할 때 남자현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33년 2월 27일의 일이었다.

남자현은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감옥으로 끌려갔다. 혹독한 고문을 견디며 6개월을 버텼고 8월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이제 너희가 주는 밥은 먹지 않는다. 너희가 감히 나를 살리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 죽어 너희들을 이겨야겠다. 조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요, 나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독립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투쟁을 선택했던 것이다. 남자현이 사경을 헤매자 일본은 그를 병보석으로 풀어주었다. 그는 곧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김성삼과 손자 김시련이 오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옮겨졌다. 죽기 전 그는 감춰둔 행낭에서 249원 80전을 꺼내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 돈 중에서 200원은 조선이 독립되는 날 정부에 독립축하금으로 바치라. 그리고 손자 시련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내 뜻을 알게 하여라. 남은 돈 49원 80전의 절반은 손자 공부시키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정에 있는 손자를 찾아 교육시켜라.”

그리고 8월 22일, 숨을 거뒀다.

손자 시련에게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남자현의 돈은 1946년 3·1절 기념식 때 김구와 이승만 등 임정요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영원에게 전달됐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오산 사성암, 네 번째 이야기 “800년 묵은 귀목과 지장전”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사성암 지장전

약사전과 나란히 선 지장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서쪽에 따로 낸 돌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지장전에 오르다 보면, 이곳이 얼마나 돌이 많은 곳인지 다시 한번 실감이 난다. 천연석을 이용해 높다란 축대를 쌓고 계단을 조성했으니, 겉으로 보이는 돌의 양만 해도 엄청나다. 저마다 생긴 모양이 다른 돌맹이들인데, 돌 틈 사이에 기와를 이용해 멋까지 부렸다.

언젠가 흥익대학교 고승관 교수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 역시 충북 괴산의 화양동 계곡 옆에서 돌탑을 쌓는 일에 매진하시는 이른바 ‘돌쟁이’ 이자, ‘돌교수님’ 이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 길이 훨씬 넘는 돌탑을 자신의 계곡에 300기가 넘도록 쌓았으니, ‘돌일’에 관한 한 기꺼이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 대단하군, 대단해.....”

그때의 일이다. 계단의 중간에서 걸음을 멈춘 교수님은 더 이상 말문을 이어 가질 못했다. 그리고는 말없는 돌들만을 한참이나 이리저리 어루만지셨다. 진정 선수가 선수를 알아준다는 흐뭇한 미소와 표정으로 말이다.

계단의 한쪽에는 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다. 수령 800년으로 추산하는 귀목이다. 귀목은 순수 우리말로 느티나무다. 느티나무는 분명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리저리 산재하던 돌맹이를 주워 모아, 모두가 제자리에 맞게 쌓아 올리던 땀 흘린 역사役事를. 발끝에 채이며 하찮게 여겨지던 돌맹이를 하나하나 모아, 이렇게 소중한 아름다운 돌계단을 꾸민 사람들 또한 또렷이 기억하리라.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우리의 발길을 편안하게 이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이 광경을 지킨다. 이들은 말 그대로 ‘목석木石’으로 남았다.

귀목나무 바로 위에는 좌선대가 자리를 폈다. 진각국사 혜심慧諶스님이 아끼던 자리란다. 섬진강의 유장한 흐름을 내려다보며 수행의 여가를 보냈다고 여겨진다. 누구나 잠시 앉아만 봐도 수행자가 되는 좌선대다.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마음의 짐일랑 벗어 놓고 가라며, 좌선대는 지나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은 늘 좁고 작다. 그래서 세상사의 물욕이나 명예심조차 슬그머니 존재를 감추기 마련이다. 더욱이 도도한 강물의 흐름은 언제나 겸손을 수반하지 않던가? 혜심스님이 남긴「유거幽居」란 시의 둘째 수를 읊어 본다.

일 많은 구름 보고 고요히 웃음 웃고 靜쌍雲多事
이웃 되는 달님을 한가로이 맞이하네 閑邀月作隣
구구한 세상사 명리의 길에서 區區利名路
날뛰고 쫓는 자 저들은 뉘런고 馳逐彼何人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담 | 제멋대로 생긴 돌들이 각각 소임을 다하며 서로 아래쪽을 차지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편안하게 오르며 순연의미를 감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장전은 약사전에서 건너다보이는 건물이다. 지장전은“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며 최후의 벼랑 끝으로 스스로 물러난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지장보살의 서약처럼 웅장한 규모와 빼어난 아름다움을 약사전에 모두 양보하고, 맨 나중에 돌아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절벽 끝에 몸을 기댔다. 지장전도 약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규모나 아름다움은 많이 떨어진다. 지장전이 존재하기에 약사전은 고맙게도 외롭지 않다.

계단 쪽에서 바라보면, 지장전과 약사전의 추녀는 나란하다. 병고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자비의 약병을 든 약사전과 온 인류를 남김없이 해탈시키고자 서원을 세운 지장전이 같은 높이로 선 탓이다.

꿈의 실현을 위해, 지장전과 약사전의 추녀들은 다짐 삼아 동시에 각을 세웠다. 세상에 어느 절이나 어느 암자가 그렇지 않으랴마는 사성암 역시 철저하게 중생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으로 설계되었다.

사성암의 비밀스런 건물 하나가 남몰래 바윗돌 틈에 숨었다. ‘스님 방’이라는 작은 표지 하나가 슬쩍 보인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원효대사가 거쳐하던 토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효방’이라고 불렀다는데, 지금은 작은 기와채로 모양을 바꾸었다.

돌아보면, 사성암에는 스님들이 발을 뺀고 편히 쉴 만한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니, 홀로 앉아 수행 정진할 만한 장소가 전연 없다. 다만 이 건물 하나가 숨어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여겨진다. 이곳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열어 보고 싶은, 대쪽으로 만든 볼품없게 생긴 사립문 안쪽의 건물이다. 그렇지만 단정하게 앉아 좌선삼매에 든 스님의 뒷모습이 떠올라 얼른 손을 거두고 말 따름이다.

다음 주는 네 분의 성자를 낳은 <오산 사성암> 다섯 번째 이야기 “소원바위와 도선굴”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